

다이아마이트는 노벨이 發明

— 노벨賞金은 寄託金利子로 —

火藥 다이아마이트는 스웨덴의 노벨賞 創始者 알프레드·노벨이 發明하였으며 이 화약의 발명으로 致富한 돈으로서 노벨賞金이 마련된 것이다.

애초 노벨은 아버지의 事業을 이어 받아 화학에 관한 研究를 하고있었으며 이미 그때에는 니트로글리세린이란 爆藥이 발명되어 있었으나 너무 危險度가 높아 實用性이 적었다. 그래서 노벨이 着眼한 것이 니트로글리세린을 固體化하는 방법 研究였으나 實驗途中에 工場이 爆發하는가 하면 그의 아우를 비롯해서 수많은 人命의 殺傷까지 났었다.

그러나 1867年 어느날 다이아마이트의 발명에 성공하였고 이로서 유럽有數의 巨富가 되었다. 그는 遺言으로 168萬파운드(25億원)를 科學學士院에 寄附하여 그 돈의 利子로서 每年 人類平和와 技術進歩에 貢獻한 사람에게 이른바 노벨賞을 施賞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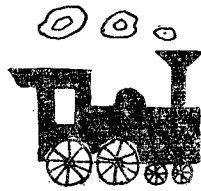
眞空研究의 始祖는 게리크

— 매그더부르크實驗으로 有名 —

眞空狀態를 이용한 研究의 始祖인 獨逸의 오토·폰·게리크라는 物理學者는 空氣 펌프를 發明하였지만 그 후 眞空에 관한 實驗으로서 世上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 실험을 매그더부르크실험이

라고 傳해 오고 있는데 그 由來는 이러하다. 1654年의 어느날 독일의 매그더부르크市에서 게리크는 直徑 40cm 정도의 구리대접 두쪽을 만들어 그 두쪽을 맞댄 다음 공기 펌프로 구리대접속의 공기를 모두 빼 내어 진공상태로 해 놓고 市民들에게 그 구리대접을 떼어 보라고 했다.



發明小史

그러나 아무리 掌力이 센사람이라도 도저히 뗄 수가 없을뿐더러 결국에는 말 8匹씩을 양쪽으로 갈다 세우고 멍에 줄을 매어서 서로 양쪽에게 끌게 한 바 겨우 떼 놓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320여년전의 매그더부르크 실험이라고 전해 오고 있다.

이를契機로 그는 진공속에서는 소리가 전해지지 않는것을 비롯하여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動物의 生命이 扶持할 수 없다는 것등 무수한 진공의 原理를 研究해 냈다.

이란 獨逸의 도이체·뷔르첸베르크大學 教授가 1895年 11月8日에 발견은 했으나 그 正體를 解明하지 못하고 學界에 發表하였다. 그래서 그때의 光線이름을 X線으로 불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X光線 또는 렌트겐光線으로 불리워 오게 된 것이다.

X線이 발견되던 그날 밤, 렌트겐교수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暗室에서 陰極線을 研究하고 있었다. 마침 검은 솜으로 산 眞空가스관에 電氣를 通하고 있던바 冊床 저쪽에 세워져 있던 螢光板에 얇은 光線이 비치고 있음을 보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음극선이 글래스관을 통한 까닭이 없다고 여기던 때라 렌트겐은 즉시 그 光線의 正體를 糾明하기 시작한바 눈에 보이지 않는 光線을 발견한 것이다.

그 光線은 손을 통하면 형광판에 빠져 비치게 될만큼 강한 것이었으나 그 이상은 정체를 규명할 길이 없어 드디어는 X光線이란 標題로 학계에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世界 各處의 學者들이 앞을 다투어 연구한바 醫學이나 工學에의 이용이 루어지게 되어 그 이름을 X선 또는 렌트겐선으로 불리워지게 된 것이다.

X光線은 렌트겐教授가 發見

— 1895年, 뷔르첸베르크
大學에서 —

퀴리夫人의 라듐發見과 맞먹는 이른바 렌트겐光線은 렌트겐

